

빅데이터 활용 전북 신성장사업 발굴

LX공사, 국민연금 등 공공·민간기업 전북도·전주시·전북대 등과 협약 체결

LX한국정보통신공사(사장 김정렬·LX)는 22일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업 전공사 등 공공·민간기업 9개 기관, 전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 전북대·원광대·군산대 등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2층 연금홀에서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2월 전북지역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5개 민·관·학 연구회를 시작으로 매월 정례모임을 통해 전북형 디지털 뉴딜 사업 발굴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의 신성장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

다. 이들 기관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 민간·학과와 교류 및 협력, 전북 AI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전북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 빅데이터 교육 및 경진대회 실시 등에 공동 참여하게 된다.

LX 김정민 공간정보사업실장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관건"이라며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해 공공데이터를 공유·개방하여 전북형 디지털 뉴딜 사업 발굴과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22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성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 공공조달시장 진출 애로 해소 지원

전북조달청·중기청 공공조달정책 간담회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 이하 전북조달청)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공동으로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22일 도내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조달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전북중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공동개최하는 공공조달 정책간담회로, 공공조달 우수사례는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애로사항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조달 성공기업(주)이오텍스는 수도권 등의 부식억제 수처리장비를 생산하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이다. 창업 초기에는 중기부 및 조달청의 성정인중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를 성장단계인 현재는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활용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쌓아 국내 민수시장



전북지방조달청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공동으로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22일 도내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과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중기부와 조달청에서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시장 공공조달방안' 후속으로, 중기부에서 마련한 우수연구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제도로서 수익계약 허용 및 시범구매 등을 지원한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공공기관 납품을 희망하는 연구개발 중소기업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나타난 공공조달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길 바란다"며 "공공조달 진출 애로사항은 전북조달청과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도내 연구개발 중소기업들이 중기부와 조달청의 혁신조달제도에 참여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 이를 발판으로 성장해 나가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전북중기청과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내 상장법인, 27사에 불과 | 전국 대비 1.1%에 그쳐

지난 2007년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선 이후 13년만에 30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이 20년만에 1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투자 열풍과 상장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삼)가 지난 5일 기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상장법인 수를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 내 상장법인인 총 27개사로 조사됐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 수는 전년대비 1개사 감소했으며, 시장별로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전년과 동일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이 1개 감소했다. 한편, 국내 전체 상장법인 수는 지난해 대비 80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자치단체별로는 익산시에 상장기업이 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 7개사, 전주시·완주군 각각 4개사, 정읍시 2개사, 장수군·부안군 각각 1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던 반도체 재료를 제조하는 익산 소재 (주)이엠네트웍스(구, 에스모머티리얼즈)가 거래 정지되면서 익산시 상장법인 수는 전년대비 1개사 감소했다.

한편, 전지박·동박·전자·바이오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익산 소재 솔루스첨단소재(주)는 지난 2019년 10월 (주)두산에서 인적 분할체 상장된 회사로 2020년 11월에 두산솔루스(주)에서 솔루스첨단소재(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탄소소재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 소재·부품 등을 생산하는 코넥스 상장기업이었던 비나텍(주)은 2020년 9월 도내 중소기업 중 처음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우수 특허 인증 참여 희망기업 내달까지 모집

전북도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전북지식재산센터)가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1년 전북지역 사업과 우수 특허 인증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에 선정된 우수 특허 인증기업 10개 사는 그간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약 277억원 규모의 사업화 매출, 30억원 상당의 수출과 8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도와 전북지식재산센터는 사업화 우수 특허 인증기업의 지역 내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기업 홍보지원으로 제품 판로 증진과 기업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IP스타기업, 중소기업 IP바로지원사업, IP금융연계지원사업 등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전북지역 대표 IP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공고일(21년 4월 12일) 전까지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보유 특허를 통해 지역 발전 및 사업화 등에 성과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지식재산센터 사업신청 시스템(<http://bizr.ipc.org/online.main.do>)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로컬푸드 가치 확산 지구·지역경제 회복

전북농협, 로컬푸드 가치 확산 캠페인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군산시 옥산농협(조합장 박규석)에서 탄소중립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로컬푸드 가치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산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난 2012년 4월 완주군 용진농협 1호점을 시작으로 2021년 3월말 현재 42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약 7,000여명의 농가에게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농협은 이러한 로컬푸드 가치 확산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로컬푸드 1번지 위상을 강화하고자 ▲직매장 확대 ▲현장지원을 통한 내실화 ▲가치 확산 체험 확대 ▲홍보(프로모션) 라는 로컬푸드 4박자 추진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직매장 확대를 위해 올해 신축하는 하나로마트 내부 공간을 활용해 직매장을 개설(군산 2, 정읍 1,

남원 1, 김제1, 고창 1 등)하고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진안, 장수 등에는 이동형매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동시에 운영원칙 준수를 위해 월 1회 상시 모니터링과 경영자급 지원을 통해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또한 가치 체험 확산을 위해 우수농가 130여 농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 매장 내 송출하고 전라북도 지원을 받아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식재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전주대와 협업을 통해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쉽게 로컬푸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전북농협 로컬푸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푸드 마일리지 가 최소화된 로컬푸드가 중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탄소중립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서 "2021년도 로컬푸드 4박자 추진과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협, 찾아가는 상호금융마케팅 현장교육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 22일 양말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호금융마케팅 현장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호금융마케팅 현장교육은 마케팅 활성화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의 마케팅 전문가가 해당 사무소를 방문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금융환경 변화 인식 및 능동적 대처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금융이슈 정리와 신용사업 현황분석, 디지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강의 및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사업분석을 통한 강점을 살리고 임직원들의 소통능력을 강화해 변화와 위기에 강한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개인사업자에 꼭 필요한 간편 뱅킹 서비스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소상공인파트너'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플랫폼 'NH소상공인파트너'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NH소상공인파트너는 ▲간편뱅킹 ▲경영지원 ▲세무지원 ▲특화서비스 등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간편 뱅킹 서비스와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특화 간편 모바일 플랫폼이다. 간편뱅킹은 타 은행의 뱅킹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한번에 모든 은행의 개인 계좌, 사업자 계좌의 통합조회가 가능하며, 별도의 인증서나 OTP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간편 송금이 가능하다.

경영지원은 고가의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입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장 매출·현금흐름 분석, 경영일일권, 직원 채용·출퇴근 관리, 급여계산 등 간편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지원은 세무자료 수집, 매입·매출 증빙 등 번거로운 세무업무 처리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와 연계해 개인사업자 고객의 절세 상담 등 세무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농협물과 연계한 One-stop 식자재 주문·결제·매입 관리 시스템 제공 및 주재별, 업종별 사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소통 공간(커뮤니티 서비스)과 경영 강좌 등을 제공한다.

장기요 본부장은 "쉽고 편리한 뱅킹 서비스, 경영관리, 세무지원 등 소상공인 특화 One-stop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화이팅 청년농업인 아자아자'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 릴레이 응원 챌린지 참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은 김영재 이사장이 22일 청년농업인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응원 챌린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시작되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끔 응원하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국립한글농수산대학의 조재호 총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청년농업인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영재 이사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관련 학과 대학생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음을 언급하며, 식품진흥원의 청년창업Lab 1기로 참여해 식품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물 아마존까지 진출한 전남 강진의 버섯 영농조합법인 브랜드 믿음윤 의 성공사례를 공개했다.

이어 2023년 준공 예정인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및 판로개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들의 든든한 창업 동반자가 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익산=장영희 기자

중기 사랑나눔재단에 후원금 기부

1500만원 상당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재정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의 참석하에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에 후원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후원금은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김윤상 기자

